

사순 제 3 주일

기도서 259 번(B해)
 제1독서: 출애 20, 1-17.
 후 20, 1-3, 7-8, 12-17
 제2독서: 1코린 1, 22-25
 복음: 요한 2, 13-25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 19).

□ 감 론



난폭한 청소부

김 영 신 신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 위에 숭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맘대로 이용만 하려 드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 신을 숭배한다.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세상이 됐다. 세태는 어느 누구도 남을 위하여 희생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남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심이 알게 모르게 인간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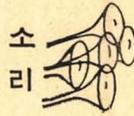
오늘 복음을 보면 성전안에 까지 이런 물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처음 폭력적 행동으로 불만쯤 강한 태도로 성전안을 깨끗이 대청소 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인간이 돈, 재물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도록 한다. 오직 자신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성전)이며, 법률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계약의 표시임을 드러내신 다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권위있게 가르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속에 살아야 한다.

주인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데 그의 종이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스승이 창피, 모욕 등 수모를 당했는데 그의 제자가 어찌 칭찬만을 받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들, 노동자들과 사귀셨는데 그의 제자들 역시 위인들, 고관들, 가진자들만 사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힘든 노동을 하셔서 지쳐 있는데 참된 제자라면 어찌 안일한 생활만 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겠다든가, 나만 천당에 가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한 순간 한 순간 어느 곳에선 만나든 모든 이들 속에서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 남을 위하는 생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백번 고백성사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상관 주임신부)



빛, झा아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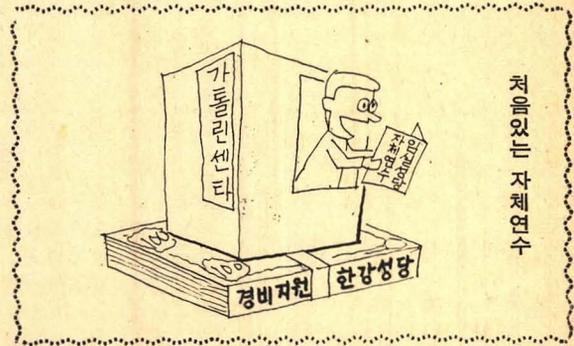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가 작년말 현재 432억 달러로, 주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채 이자 지급액만도 최근에는 연간 4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의 개념으로 환산해보면 외채는 34조 5,600억원이고, 작년에 지급된 이자는 3조 2천억원이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예산이 11조 3,900억원이니, 우리가 진 빚이 얼마나 큰 돈인가 짐작이 가리라.

이에 정부는 심각한 외채 부담을 덜고 국제수지 적자를 적정수준에서 방어하기 위해 원유·곡물·원목 등 주요 수입 원자재의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금융의 용자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공무원의 해외출장비와 해외유학생들의 유학경비 한도를 축소시키기로 했다. 또 소비조장적인 TV의 과대광고와 호화무대 등을 검소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동안 외화지출이 많았던 위성중계도 줄여가기로 했다.

국민 개개인이 80만원짜리 빚을 지고 있는 마당에 이 탈리아제 7백만원짜리 소파가 웬말인가! 1백10만원짜리 순금 장식이 붙은 침대, 3백만원짜리 대리석 식탁, 어린이들의 지우개와 필통에서부터 간장 된장 등의 조미료까지 외래품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이를 무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지난 선거때 야당이 지적했대대로 호화판 파티를 벌여야 국제적으로 나라 체면이 선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정권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외채상표나 좋아하는 국민들의 사치풍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외국빚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참으로 걱정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잘못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 빚이다. 이 사순절에 내 잘못과 무관심으로 인한 빛과 이자,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숲 정 이 산책



처음 읽는 자체연수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마르코 9:7(마태 17:5)

이 말씀은 예수의 변모(變貌) 장면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의 변모는 예수 생애 중에 가장 특기할만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대(大) 고백 직후,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변모(變貌)는 그저 「변모」라기 보다 오히려 예수의 「원(原)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은 예수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변모」였다. 이제 원(原)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가면」이 벗겨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변모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많은 설(說)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위대한 사실을 설명하려는 데 있다.

모세,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한다. 그들이 예수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구약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일러준다.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만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말을 잘 들어라」고하는 「소리」에 귀결되는데, 예수의 복음이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일러준다. 이것이 변모(變貌)의 가장 중대한 의의이다. 모세 율법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은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요한 1, 45: 로마 8, 3).

우리는 죽은 의식(儀式), 도덕의 교회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변모의 산에서 예수의 영광의 체(體)를 흠송하고, 「그의 말을 잘 들어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있다. 율법자 모세도 갔고, 회개의 선교자 엘리야도 갔다. 이제 예수만이 남아 있다. 십계명에 관심을 갖는 이상으로 그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느님 뜻에 순응한 성요셉 I

3월은 성요셉 성월이다.

사순절과 함께 지내는 성월이라 미처 기억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사업에 충실히 협력하셨고, 하느님의 뜻에 가장 완전히 순응했던 성요셉을 잊어버려선 안된다. 오히려 성요셉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성요셉은 성모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이다. 그의 높은 완덕의 비결은 모든 것에서 이탈하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신의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느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했다. 마리아와의 결혼도 하느님의 뜻을 알자,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온순히 따랐다.

성요셉에게 심각한 의문이 생긴 때도 있었으나 그는 현명한 침묵으로 그 번민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고 할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천사가 이야기 할 때에도 요셉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천사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요셉은 침묵 중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할 뿐이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호구조사명을 내렸을 때에도 아무

불평없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집도 찾을 수 없는 곤란한 처지였지만 하느님의 섭리하실에 불평하지 않고 동굴을 찾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자리를 준비했다.

예수님 성전 봉헌식에도 당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으나 충실히 율법을 지킨 것도 하느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에집트로 가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도 요셉은 아무 반문도 없이 떠났다. 여행의 어려움,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불평도 많았지만 천사의 알림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요셉은 이런 지시를 여러 번 받으셔야 했지만 언제나 침묵으로 받아들였다.

에집트에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팔레스티나로 돌아올 때도 하느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지방으로 가기 위해 하느님께만 귀를 기울였다. 예수께서 나자렛에서 사는 것이 당신 뜻을 알게 해주셨을 때 요셉은 아무 질문없이 순명함으로써 구세주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요셉은 하느님 손안에 들어있는 지극히 온순한 도구였다. 요셉은 하느님의 뜻을 이행한 성인이다.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⑤ 5289

□마춤 · 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페백의상 ·
신부부케 · 야의촬영

판릉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⑥ 6951
정 인 기(논지도)
최 영 자(헬레나)

<정성과 봉사>

금, 은, 보석, 시계

금 진 당

전주백화점 1층 52호
☎ 2-5506
정 인진(프란치스코)

※ 전북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비뇨기과
원장 전문의 **최 명 기**(루가)
부설: 임상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임 준 자(글라라)
☎ ③ 1719 · ④ 0616(상담전화)
(규역전 오거리 · 팔달로 동편 2층)



□ 무지개 가족

교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 복지를 위한 중요사업의 하나인 장애자 사목(지도, 지정환 신부)이 조용히 발전하고 있다.

신체적인 장애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어려운 신체적 여건, 그 나름대로 이웃에 봉사를 위해 모여진 <하나회>는 (회원 85명) 무관심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온 것이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기도와 대화 속에 간단한 기술교육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장애자들을 위한 임시숙소 「무지개 가족」를 마련하고 깊은 신앙 안에서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고 있다.

지역적으로 소외된 장애자들을 위해서도 일일이 방문하고 기도와 위로를 나누는 이들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나누며 우리들의 더 큰 관심과 후원의 아쉬움을 느낀다.

□ 고향본당을 떠나 사는,

이향 신자들을 위한 새로운 관심이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고산본당(박 병준 신부)에서는 고향본당을 떠나, 도시에 사는 본당 소속 노동, 근로 신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역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도시라는 여건에서 신앙적 정착이 어려운 이향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목적 배려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정착을 돕고 식여가는 신앙심을 추수려 주고 본당과의 유대도 잃지 않게 되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특히 본당소속 공소의 젊은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대전에서 그동안 2~3회 이 모임을 실시해온 고산본당은 이제 이 사업이 본당사목의 중요한 몫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향자들에 대한 이런 사목적 배려가 이제 본당차원에서 뿐 아니라 교구차원에서 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 숲정이 명상

가난과 풍요로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문제란다.

믿음도, 노래도, 이야기도, 웃음도 없는 것이 곧 가난이란다.

내가 믿을 하느님이 없음이, 마음에 부를 노래가 없음이, 남에게 속삭여 줄 이야기가 없음이, 남에게 베풀 사랑이 없음이, 남에게 던져줄 미소가 없음이 가난이란다”.

어느 영화에서든가, 양지바른 돌담 옆에서 가난하게 떠나는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러주는 어느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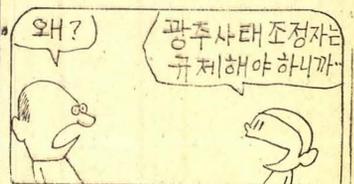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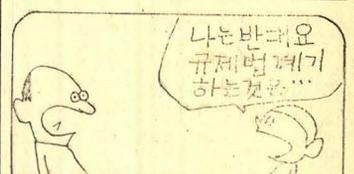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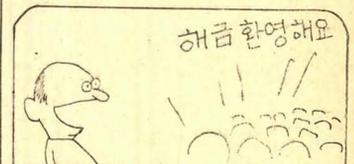
마음의 풍요로움- 바로 그것 아닐까? 외적으로 가진 것 없이 가난할지라도 풍요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나 때문에 남이 기뻐할 수 있을 때, 내 말 한 마디, 내 미소 한 조각, 내 몸짓 하나 때문에 남이 기쁘고 즐거우다면 그것이 곧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누가 가난하다고 마음 아프고, 누가 가진 것 없다고 손바닥 보이겠는가? 그 누가 나는 결코 나뉘 줄 것이 없다고 고개 젓겠는가?

사순절- 무엇보다도 이웃과 나눔이 있어야 할 때이다.

요십이 (605) 김병오



나들이 미용실

- *신부화장 *드레스대여
- *사모관대 대여
- *부케 알선 *사진촬영
- 이리경찰서앞 (하야진물)
- ☎ 2-7901
- 김 숙 자(실비아)

천주교 서적 판매합니다
(성바오로출판사, 가톨릭출판사, 분도출판사)

군산 양우당서점

- 초·중·고 참고서, 신간서적, 기술서적, 피아노 교본
- 주 박영근(가브리엘)
- ☎ 62-9984
- 군산, 군산 고등학교 옆

한 일 옷 감

- 훈수 (회갑. 수의) 옷감
- 명주. 목화솜이불 전문

교우분들께는 염가봉사

전주 구 남부배차장 (영신당환약방 옆)
조 성 순 (테레사)
TEL. 2-7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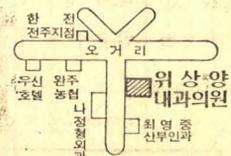
위상양내과의원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am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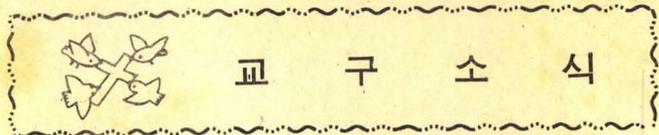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②9152. 1752

위 상 양 (프랑스교)
김 병 희 (글 라 라)



(4) 순 정 이



1. 사제 연수회 : 3월 13일 오전 10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내용-해방신학 강사-함 세웅 신부·이 병호 신부
2. 사제 인사이동에 따라 교구 사제평의회 임원이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습니다
제3지구장-박 진량 신부, 대표-양 재철 신부, 제4지구 대표-이 성우 신부, 제5지구장-문 정현 신부, 대표-박 성팔 신부, 신학교 대표-김 진석 신부. 교구와 지구를 위해 수고하시겠습니다
3. 성소자 모임(예비신학생) : 3월 17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고·대·일반 남자(사제성소에 관심있는 자), 주제-믿음의 성장
4. 신학생·성소자 부모 피정 : 일시-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접수-3월 23일 오후 4시
대상-신학생 성소자 부모 및 관심있는 분, 주제-주여 당신 종이 왔나이다.
회비-1인당 4천원(부부 동반일 경우-6천원)
4. 신앙대학 학생모집
①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월 11일~3월 15일, 장소-교구청 교육국(☎0041~4)
②등록금-학기당 4만5천원(교재비, 특강비 포함) 3개월 분할 가능
③개강-3월 18일 오후 7시30분
5. 제7기 예비자반 모집 : 금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강당, 문의처-교구청 교육국(☎0041~3)
6. 연지동 본당 전화 신설 : 경주 ☎0898
7. 각지구 중·고 지도자 지구장 모임 : 일시-3월 17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캐나다 교포 사목을 위해 오랜동안 교구를 떠나 계셨던 김 병운(베네딕토) 신부님께서 지난 2월 25일 귀국하시어 교구청 관리국장으로서 부임하셨습니다.
다시 교구 중책을 맡으시고 수고하실 신부님을 위해 기도중에 기억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전주시 진북2동 1144-1

주임신부 김 종 길

사도회장 김 수 겹

순 정 이
천 주 교 회

사 제 관 ☎ 7 3 6 6

수 녀 원 ☎ 9 5 6 7

사 무 실 ☎ 7 3 6 6

1. 미사시간 안내

주일 : 새벽미사-6시, 공식미사-오전 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
평일 : 월요일-6시, 수요일-10시, 화·목·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오후 6시30분

- ②진북2동 1~5구역-27일
- ③진북2동 6~10구역·동양아파트-28일
- ④금암1·2구역·진북1동 1·2구역·기타-29일
- ⑥중·고 대학생-30일 오후 3시30분~6시
- ⑥국민학생-31일 오후 3시30분~6시

2. 예비자교리 안내

화요일 : 오전 10시 김채질리아 수녀
수요일 : 오후 7시30분 이베로니카 수녀
목요일 : 오후 7시30분 남자반(본당신부, 이종욱)
일요일 : 오전 11시 이베로니카 수녀

- 5. 부녀회 피정 : 20일 오전 10시 시작
- 6. 애령회 부회장 : 고재권 형제 수고하시겠습니다
- 7. 미사안내 : 금주-봉사분과, 차주-구세주의 모후
- 8. 금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이귀례·송숙자
차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이규철, 유희자

3. 모임 : ①우리아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86,700원 교무금 : 415,810원

4. 봄 판공일정

①서신 1~5구역·어은골-26일

